

편집 및 발행인 : 김중덕 ·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감수 : 이언경 · 담당자 : 권보배 전화번호 : 051-797-4774 · E-mail : ekleee@kmi.re.kr / b2kwon@kmi.re.kr

Contents

● 국제물류 통계

- 홍해 사태로 글로벌 무역 혼란 고조 우려

●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

- ICTSI, 일로일로항 25년 운영권 확보

● 미주·중남미 물류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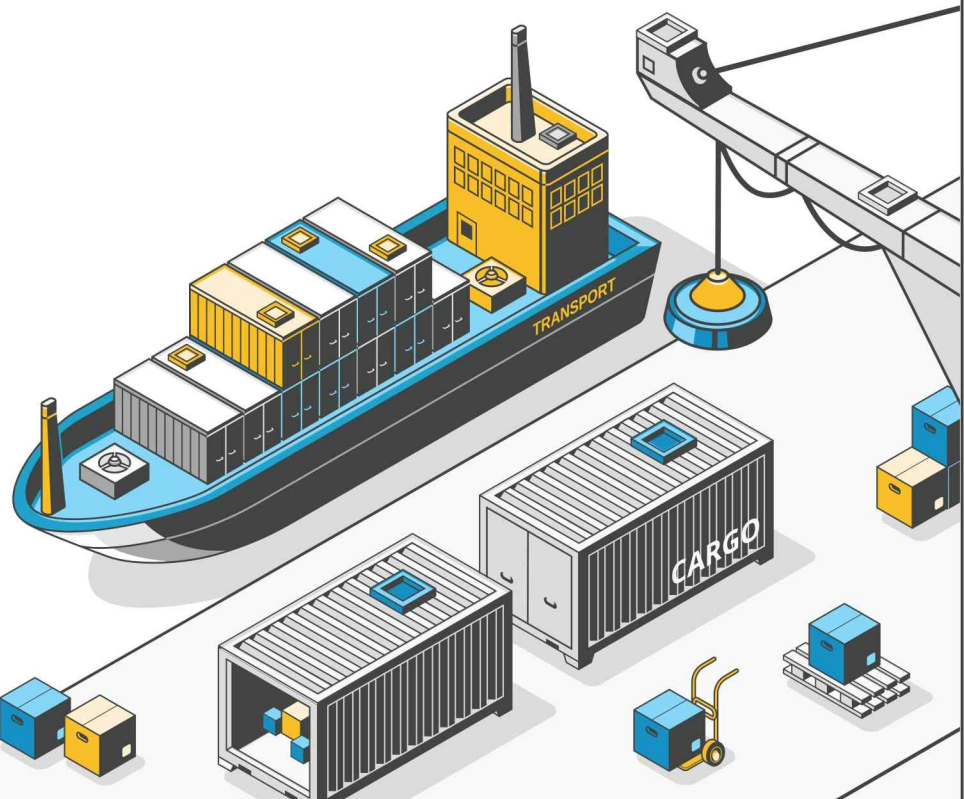
- 머스크, 파나마운하 제한에 따른 OC1 서비스 시행

● 유럽 물류시장 동향

- 카자흐스탄, 글로벌 이슈 지속으로 유라시아 물류시장 핵심 요충지로 부상

● 공지사항

- 2024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



홍해 사태로 글로벌 무역 혼란 고조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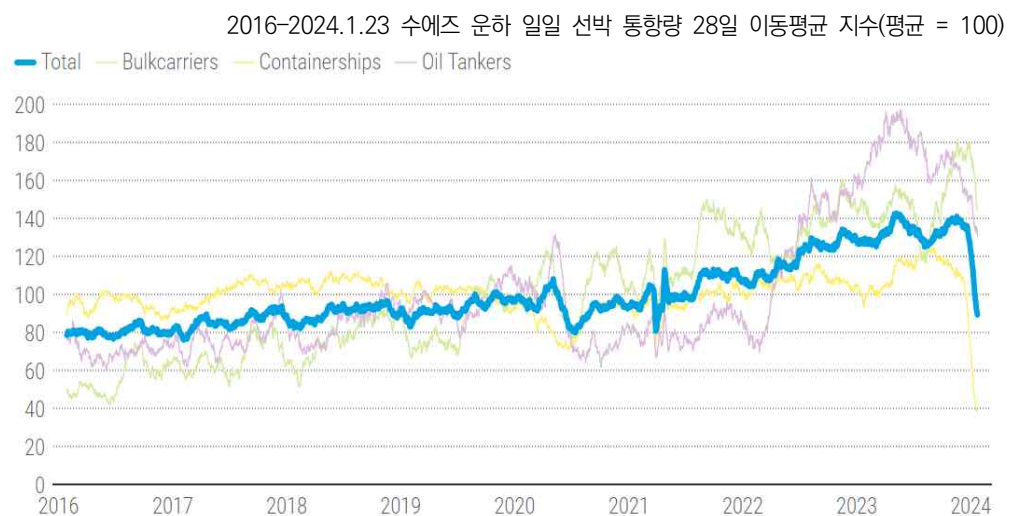
▶ UNCTAD는 최근 물류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홍해 사태가 앞으로도 글로벌 무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함

- UN의 무역 및 개발 기구인 UNCTAD는 세계 무역에 대한 혼란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함
- 홍해 사태와 더불어 흑해 항로(우크라이나 전쟁), 파나마 운하(기후변화)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주요 항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함
- 글로벌 무역량의 80%가 해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사태들로 인해 무역량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 흑해, 파나마, 수에즈 운하 붕괴

-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중요한 수로인 수에즈 운하는 지난 2023년 전 세계 무역량의 약 12~15%를 처리했으나 지난 2개월 동안 4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석유 및 곡물 거래의 변화로 기존 무역 패턴이 재편되기도 했음
- 또한 글로벌 무역의 또 다른 주요 동맥인 파나마 운하는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수위가 낮아져 지난 한달 간 전체 운송량이 전년 대비 무려 3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기후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며, 해상 항로가 교란되는 홍해대란으로 인해 공급망에 대한 복잡성은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홍해대란에 따른 수에즈운하 교통량 변화



자료: <https://unctad.org/>(검색일: 2024.1.30.)

● 화물운임 및 배출가스 급증으로 컨테이너선 운송량 급감

- 홍해 사태에 대응해 주요 선사들은 수에즈 운하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임
- 특히 주간 컨테이너선 운송량이 67% 급감했으며, 유조선 및 가스 운반선 역시 상당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이번 사태로 물류비도 상승하고 있으며, 12월 마지막 주 평균 컨테이너 현물 운임이 500 달러 급등해 주간 상승률 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함
- 중국 상하이의 평균 컨테이너 현물 운임은 12월 초 이후 두 배(+122%) 이상 증가했음
- 상하이에서 유럽까지의 운임은 3배 이상(+256%) 증가했으며,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지 않는 미국 서해안 운임 역시 1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외에도 보험료가 급등해 전체 물류비를 가중시킴
- 또한 수에즈 및 파나마 운하 대신 우회로를 이용하면서 더 빨리 운송해야 함에 따라 선박 운송에 더 많은 연료를 소비하게 되고 이는 곧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이어져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글로벌 영향: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

- UNCTAD는 이러한 물류 혼란이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특히 컨테이너 운송이 차질을 빚음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언급함
- 배송 지연은 곧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인데 현재 컨테이너 운임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최고치의 약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타격을 주게 될 것이며, 이는 1년 이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됨
- 가스 운송의 중단으로 에너지 가격 역시 급등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의 에너지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 외에도 유럽, 러시아 연방, 우크라이나의 곡물 운송 중단은 세계 식량 안보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런 공급망 혼란은 전 세계 식량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장거리 운송과 높은 운임이 지속된다면 잠재적으로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 UNCTAD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특히 이러한 공급망 혼란에 취약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함
- 나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글로벌 공급망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 공급망 재편을 위한 해운 업계의 신속한 대응과 더욱 견고한 국제 협력, 그리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힘

참고자료: <https://unctad.org/> (검색일: 2024.1.30.)

ICTSI, 일로일로항 25년 운영권 확보

- ▶ 필리핀 항만청(PPA, Philippine Ports Authority)은 자국의 글로벌 항만운영사인 ICTSI(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Services Inc.)와 필리핀 중심부의 일로일로 상업항만단지(ICPC, Iloilo Commercial Port Complex) 개발 및 운영을 위한 25년 양허 계약을 체결함
 - 일로일로 시 중심부에 위치한 ICPC는 일로일로주와 필리핀 서부 비사야 제도의 파나이섬 전체에 서비스를 제공함
 - ICTC에 인수된 후 상업항만단지는 VCT(Visayas Container Terminal)로 변경될 예정임
- ▶ VCT 항만의 운영 부두 길이는 627m이며, 컨테이너와 일반화물을 보관 및 장치하고 기타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20헥타르 부지가 있음
 - ICTC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터미널 인프라 개발 및 재건, 화물 취급 장비 배치에 투자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터미널의 생산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집중할 예정임

ICTSI의 VCT 청사진



자료: <https://www.ictsi.com>(검색일: 2024.1.30.)

- Christian R. Gonzalez ICTC 수석부장은 우리는 일로일로로의 경제적, 사회적 성장을 주도하는 데 있어 항만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일로일로 항만을 최고의 관문으로 재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인프라 업그레이드, 화물 처리 장비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등에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말함

머스크, 파나마운하 제한에 따른 OC1 서비스 시행

머스크가 지난 1월 10일 오세아니아와 북미 간 OC1 Pacific Loop 서비스 구간을 일부

개편한다고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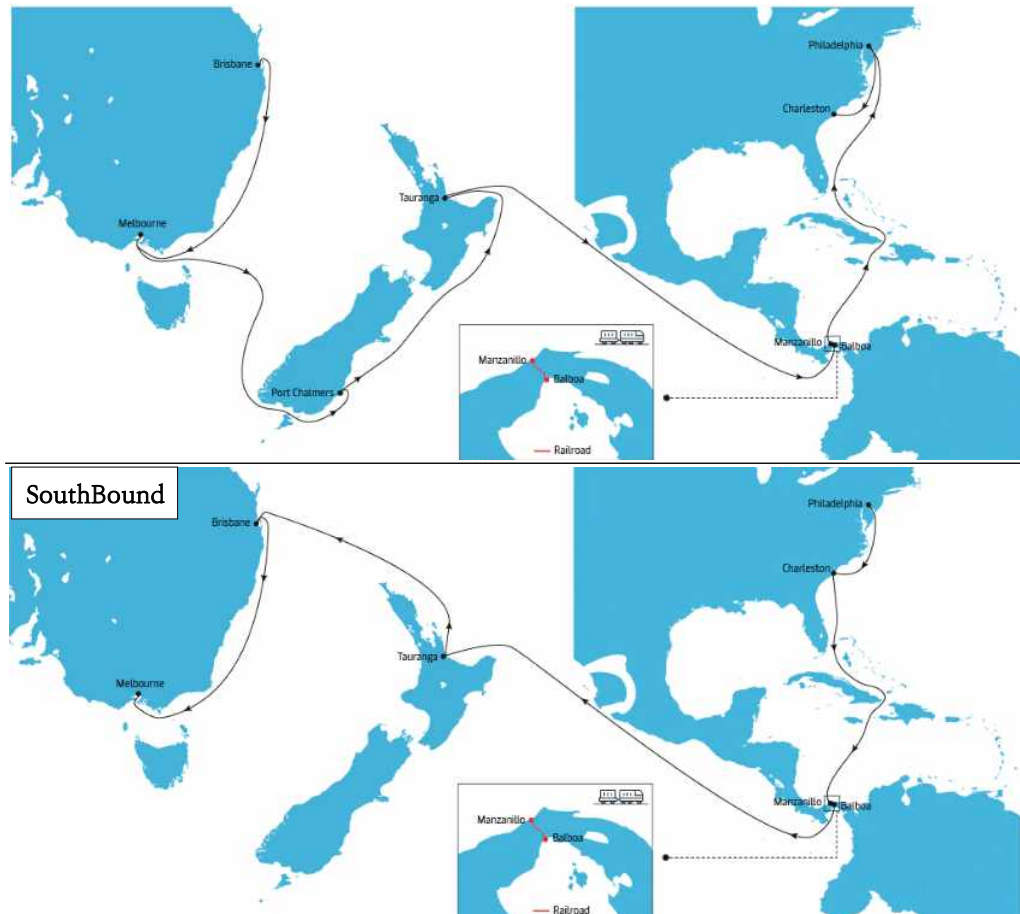
NorthBound

로스앤젤레스-필라델피아, 찰스턴, 만사니요, 발보아, 타우랑가, 브리즈번, 멜버른, 포트 찰머스, 크리스토팔, 카르테헤나에 3,100TEU-3,800TEU 11척을 투입해 시행 중임

- 기존의 서비스에서 만사니요와 태평양 연안의 발보아 구간인 약 80km에 레일 루프 랜드브릿지를 연결하고 OC1 서비스를 태평양과 대서양 구간을 분리해 운항할 예정이며, 크리스토팔 및 카르테헤나 입항은 본 서비스에서 제외될 예정임

- 따라서, 본 서비스는 발보아-타우랑가-브리즈번-멜버른-포트 찰머스-타우랑가-발보아 순인 OC-1 태평양 서비스(8주, 8척 투입) 및 만사니요-필라델피아-찰스턴-만사니요 순인 OC-1 대서양 서비스로 분리되어 이루어질 예정임(3주, 3척 투입).

머스크 OC1 서비스 개편



자료: Maersk 홈페이지

➤ 본 서비스 재편은 파나마운하 제한에 따른 통항혼잡을 피하기 위한 조치임

- 파나마운하는 1월 16일부터 일일 최대통행횟수를 24회로 늘렸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인 36회에 미치지 못하며, 건기인 12월부터 4월까지 추가제한 가능성이 있음
- 본 서비스를 통해 머스크는 파나마운하 제한에 따른 리스크 완화 및 동 구간 내 선박의 운하통과 대비 CO2 배출량 또한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하지만, eeSea의 데이터에 따르면, 파나마 운하 철도 회사(PCRC)의 동 구간 내 연간 화물 운송능력이 200만 TEU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랜드브릿지 서비스 추가에 따라 충분한 화물 운송능력을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음

➤ 본 서비스 재편에도 불구하고 기존 서비스 노선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임

- 머스크 관계자에 따르면 오세아니아-미국서해안을 연결하는 PANZ 서비스는 기존과 같이 유지할 것이며, 미국 걸프만 내 항만들 간 연결 또한 유사한 방식을 통해 연결할 것이라 밝힘
- 관계자에 따르면 정기항로 개편 이후 Northbound의 경우, 지연없이 필라델피아 및 찰스턴행 화물이 운송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Southbound의 경우 약간의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카자흐스탄, 글로벌 이슈 지속으로 유라시아 물류시장 핵심 요충지로 부상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중동에서 발생한 정치적 이슈 등 글로벌 시장 내 이슈 지속으로 유럽과 아시아 물류시장에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에서 발생한 군사 충돌로 인해 수에즈 운하 이용까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물류루트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카자흐스탄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물류요충지로서 자국의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카스피해를 경유해 유럽까지 이어지는 'Middle Corridor'를 내세워 주요 국가로부터 교통-물류인프라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세계 최대 내륙 국가로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점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과 풍부한 자원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유라시아 물류허브 국가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곡물을 비롯해 석유, 비료 및 철 등 주요 품목의 생산지이자 수출국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전략적 물류거점 역할뿐만 아니라 자국 수출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륙터미널 등 물류인프라 구축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이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난해 자국 물류경쟁력 제고 및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키르기스스탄과 국경 지역 내 물류단지 개발 및 무역통합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 또한 지난해 11월 카자흐스탄과 튀르키예는 양국 간 무역관세, 인프라 개발 협력 및 공동 철송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INSTC 루트 활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음

중국 시안 → 카자흐스탄 철송터미널



자료 : <https://astanatimes.com>, (검색일 : 2024.01.31.)

- 특히 카자흐스탄은 유럽과 아시아간 철송에 대한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주변국과의 협력을 이어나간 결과 지난해 중국과의 철송 물동량이 전년 대비 22% 증가하는 등 유라시아 물류허브로서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지난해 카자흐스탄과 중국 간 철송 물동량은 전년대비 22% 증가한 2,800만 톤에 달했으며, 컨테이너 기준 약 14% 증가해 처음으로 100만 TEU를 돌파함
- 이에 양국은 철송 확대를 위해 Dostyk-Moiynty, Darbaza-Maktaaral 구간 등 철도 노선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철송 능력을 기존 대비 5배 확대하는 등 철송 네트워크를 늘려나갈 계획임

- 여전히 글로벌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신규 물류허브로 카자흐스탄의 행보와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물류루트의 성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실제 러-우크라 사태 및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 이후 대부분의 항공화물 경로가 카자흐스탄의 영공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되었으며, 카자흐스탄은 이러한 점을 활용해 항공물류 허브 구축 전략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열린 EU-중앙아 물류포럼을 통해 카자흐스탄 내 주요 물류인프라에 대한 투자 유치 및 인프라 운영 참여까지 대외적으로 요청하는 등 글로벌 물류허브로서 자국의 경쟁력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 2030년까지 자국 물류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수립하는 등 물류국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음

2024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2024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도 해외물류시장 개척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1.30(화) 09:00 - 3.8(금) 18:00

지원내용

1.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대상사업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분석 비용 지원 ① 인수합병형(현지기업 M&A 및 지분투자) ② 시설투자형(물류인프라 투자 및 확보)
수행대상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기관
지원금액	최대 8천만원 한도 내 조사비용의 50% 지원

2.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 사업

대상사업	해외물류시장 진출 과정 내 물류프로세스 및 공급망 진단·분석·설계, 시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수행대상	물류기업 및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지원금액	· 물류기업 단독 수행 : 최대 3천만원 내 조사비용의 50% 지원 ·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 최대 4천만원 내 조사비용의 50% 지원

제출방법

한국해양수산개발원(www.kmi.re.kr)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국제물류 정보포탈(withlogis.co.kr)에서
공고문 확인 및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제출

온라인 사업설명회('24.01.30~)

2024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채널(<https://youtu.be/0fMtcKTOJJI>)을 통해 실시



YouTube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문의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최나영환 센터장 T 051-797-4770 E chnayoung@kmi.re.kr
· 김동환 전문연구원 T 051-797-4913 E kdong@kmi.re.kr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



친구 추가 방법

1. 카카오톡 메인화면
상단 친구 검색



2. 『국제물류 정보포탈』
검색



3. 친구추가 버튼

